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개인정보취급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제안자

▶ 성 명 수원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달팽이 어린이집

▶ 연락처 010-7112-6974, 010-5795-4959

▶ 주 소 수원시 장안구 과장천로 45-11번지

※ 제안사업 반영결과는 시 홈페이지(<http://yesan.suwon.go.kr>)를 통해 12월 중 공개됩니다.

제안내용

▶ 사업명

지역 보육문제를 해결할 주민자치 어린이집 지원 사업
- 지역공동체를 이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 사업위치(주소 또는 건물 명칭을 사용 구체적인 위치 기재)

수원시 장안구 내 시유지 등

▶ 사업량(예산이 요구되는 부분, 사업구간, 면적, 수량 등)

1안) 수원시의 시유지를 제공할 경우 - 시의 예산 따로 필요하지 않음.

주민자치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건축 필요면적 100평~200평 제공을 통해 지원.

2안) 건축물 설립 지원을 할 경우 - 주민자치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5천만원
~ 2억원까지의 예산 지원 필요 예상.

▶ 사업내용(현재상황과 비교하여 개선방법 등을 포함 자세히 기재)

- 부족한 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주민자치 어린이집(부모협동형) 지원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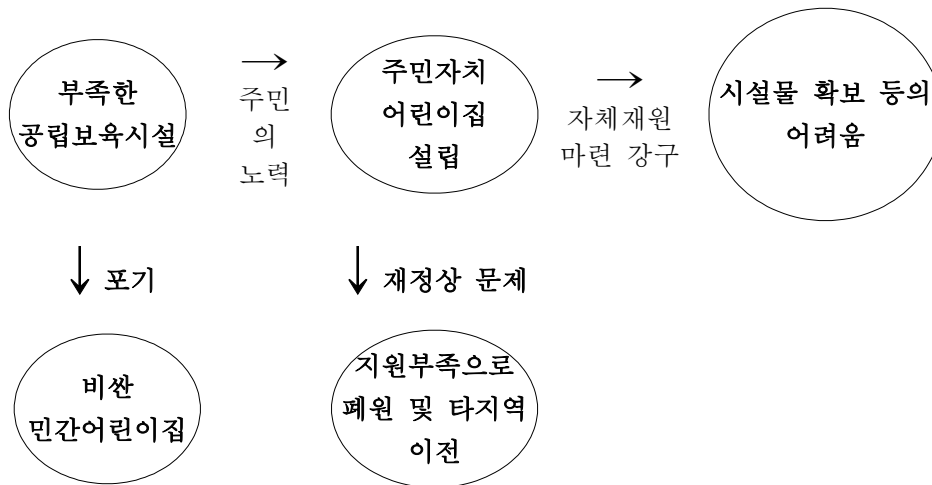
1.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란?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란 현재 영유아보호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협동어린이집

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현재 수원에서는 4개의 주민자치 부모협동 어린이집(이하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설립돼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것이며, 보육을 자치의 문제로 인식하여 우리아이를 우리 마을에서 함께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을 가진 부모,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꾸려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는 '내 아이만 키우기'가 아니라 '너와 내가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즉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조직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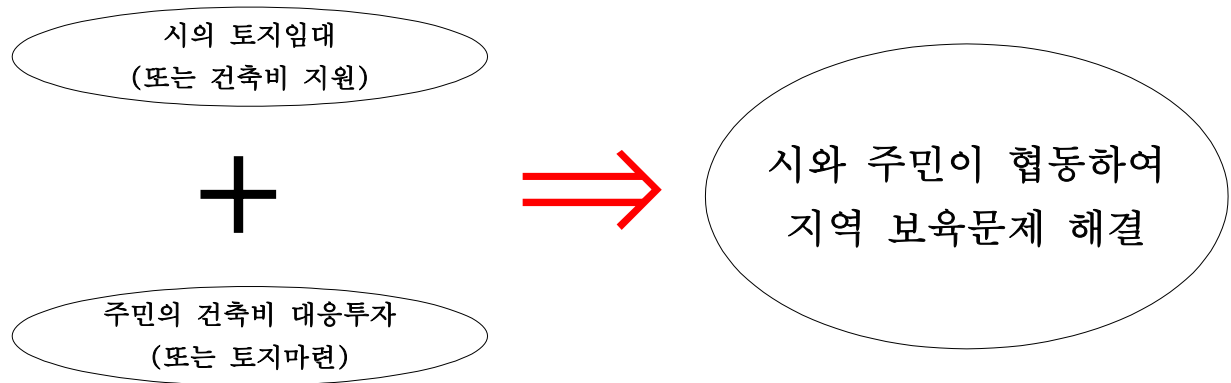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큰 당면문제가 시설물 확보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부모들이 조합비를 각출하여 매달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확보를 위한 재정을 따로 마련해보려 하고 있으나 주민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만 한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꾸려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꿈이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쳐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4곳 가운데 영구 시설을 확보한 소는 한 곳도 없다. 모두가 시설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달 조합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통구에 있었던 주민자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또 한 곳의 경우 타 지역(안산)으로 옮겨간 상태이다.

현재 과장동 ‘달팽이 어린이집’의 경우 조합차원에서 영구 시설물 확보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개인 기금만으로는 토지구입비용 최소 6억, 시설건축비용 3억 정도로 예상되는 예산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3. 사업제안 내용



▶ 필요성 및 사업효과 (수혜범위 및 대상 등)

1. 현저하게 낮은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보육문제가 영리성에 치우치는 면이 많아지며 생긴 보육시스템의 실패이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이제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 국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한다. 새 정부가 밝혔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시급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자치형태의 공동육아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수도권의 타 지역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으로 보육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총 6,259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1,214개소로 19.4%에 달하며, 개원 준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이 1,541개로 국공립의 비율이 23.4%로 증가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은 2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는 총 1,156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37개소로 3.2%에 불과하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입소 대기신청 기준). 인근 시를 살펴봐도 국공립의 비율이 의왕시 8.1%, 과천시 17.0%, 광명시 7.2%, 부천시 5.5%로 수원시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상의 효과를 내는 주민자치형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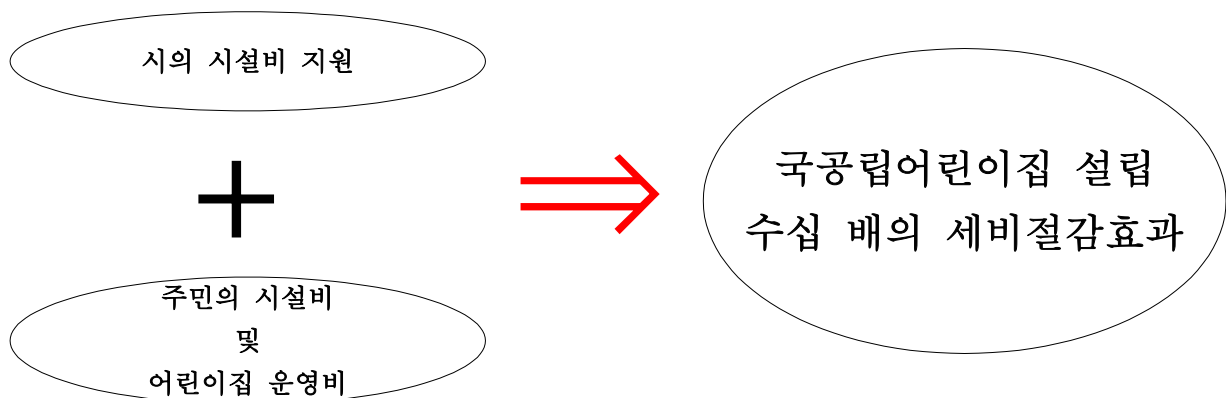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당장 수원시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수원시의 열악한 보육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주민자치의 공동육아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므로 수원시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이 아닌 수원시민과의 공동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자치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고립된 육아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를 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공동육아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육아를 통한 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는 나아가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영구 시설물 확보 지원사업으로 매년 30여명의 유아와 그 부모(60여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으며(영구시설물 마련시 그 대상수는 더욱 늘어날 것임), 지역 육아교육사업 및 상담 그리고 마을행사 등을 통하여 매년 200여명이 직간접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비용대비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부모협동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목표로 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실현 - 수원형 공공어린이집, 국공립 특수 어린이집 확대지원’, ‘수원형 시민 자치 실현 - 사공이 만드는 더 큰 수원’을 전략으로 하고 있는 현 수원시의 시정에도 부합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 **기타 특이사항** (지역주민 여론 또는 의견, 필요시 위치도 또는 현장사진 첨부)

수원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집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환경, 자녀교육,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좌, 마을 음악회, 단오 행사 등을 펼쳐왔으며,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이나 수원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 등에도 참여하였다. 마을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로 주변 지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대상 교육 강좌 개설



파장동 주민센터에서 마을 음악회 개최





매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오 행사 개최

2014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
"마을과 함께크는 달팽이 어린이집"
시민 공개 강좌

수원공동육아조합 달팽이 어린이집에서
초반월 및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의 교육, 환경,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최 : 달팽이 어린이집
후원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센터
장소 : 파장동 주민센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81 (파장천로60))

강의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강은 iccoop미래생협 교육실에서 진행합니다
(대평로 90번길 19 라이프스타일 210호)
일시 : 매월 해당 주 토요일 오후 2시
신청문의 : 010-9429-3492

강사	강의 내용과 강사, 일시
	제1강 : 4월 19일 <우리가 알아야 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강사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제2강 : 5월 17일 <달팽이는 가능하다 - 달팽이 안전한 먹을거리> 강사 :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경기도 및 서울시 교육청 환경생태 시군위원, 녹색당 정책위원장
	제3강 : 6월 21일 <특별한 아이(장애 아동)과 함께 키우기>

강사



나래 지킴은
위원이야!

* 8월 *
달팽이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2013년 달팽이 여름학기행사

공동육아조합통합은?
보육의 영리화와 경쟁체제에 아이
들을 밀어 넣는 것에 대해 고민하
는 사람들이 모여, 대안적인 삶의
방식과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을 만들
게 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과
일과 놀이가 결합된 교육을 강조하며 교사와 부모

수원 공동육아 협동조합 달팽이 어린이집은
환경, 자녀 교육,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린이집 소개 및 가입안내를 받으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시민 공개 강좌 주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음악회 개최 - 공연하는 모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음악회 개최 -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 떡과 매실차를 나눠드리는 모습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원시 공동육아한마당

안정적이지 못한 시설과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이 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좀더 한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